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천국일꾼,
복음의 종으로
거듭나다!

2009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미가 7:14~20)

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이다. 미가의 기도를 살펴볼 때에 언제 기도가 꼭 필요한 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미가는 유다의 필요인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리라.” 하나님께 백성인 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필요했다(사 105:9-10, 26, 42, 45). 하나님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라(사 43:2-3). 미가는 간절하게 말들을 생각하며 유다를 위하여 간구하였다(미 7:14-15). 43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사용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으로 바르를 항복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금을 보화를 가지고 나게 하셨다(사 105:36-42).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안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9-13). 이러한 기도들이 곧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성경적인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높아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다.

미가는 유다가 신앙을 회복함으로서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유다가 전날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먼저 저들의 원수가 없어져야만 한다. 미가는 유다의 원수들을 향하여 예언하였다(미 7:16~17). 원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지난 주간 동안 충경기도원은 복음의 열기로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고동부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걱정하는 줄도, 적어도 충경히교회에 모였던 주님의 자녀들은 예외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부흥의 열기는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12일(월)부터 제교목위원회 소속 9개 교회 학교에서 일제히 성경강화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중등1·2·3부는 중흥기도원에서 각각 1박 2일 수련회를 진행하며,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소년부는 13일(화) 하루 동안 각각 교회에서 모든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교회학교별로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4)의 주제로 진행될 이번 겨울성경강화 및 수련회를 통해서 말론인 천국교인들이 아닌 진짜 천국교인, 즉 복음의 종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롬1:1~4)

부서	일시	장소	부서	일시	장소
중등1부	1월 12일(금)~13일(토)	충천7도원	초등부	1월 13일(토)	제1교육관 407호
영아부	1월 13일(토)	제1교육관 110호	소년부	1월 13일(토)	제1교육관 507호
유아부	1월 13일(토)	제1교육관 201호	중등2부	1월 14일(토)~15일(일)	충천7도원
유치부	1월 13일(토)	제1교육관 307호	중등3부	1월 15일(일)~16일(월)	충천7도원
유아부	1월 13일(토)	제1교육관 202호	대학부	1월 20일(토)~22일(월)	충천7도원

하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세력을 자신들의 세력과 비교할 때 부끄럽게 하소서(사 26:11). 주의 백성들을 놀여 주옵소서(사 49:22). 유다인자들의 수치스러움은 곧 유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유다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십시오!" 당시 유다의 원수들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더 강한 신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높인 것이다. 이것은 부당한 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지기를 반드시 간구해야 한다.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아 하명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마 6:9).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원하셨다(벧 2:10).

죄 용서함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미가는 유다의 죄가 용서할 법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미 7:18). “나와 같은 신이 어찌 있으리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미가는 알고 있다. ‘미가’의 뜻이 ‘주요는 내가 어찌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며 온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온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 아담과 요셉의 자손을 구하시니 신 하나님이다(미 7:17-19; 77:13-15). 창조주가 되며 언약의 하나님이다. 무수한 신 중종의 하나님이다. 남은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회개하는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기쁨을 베푸신다.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다. 인재를 기뻐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죄악을 밟로 밟으시며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미 7:19-20).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기 때문이다(사 53:10).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에 지친 자를 용서할 것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마 6:12). 죄 짓는 자녀들을 향한 신 자비하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죄의 속박과 꼭 필요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시 130:1-4).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죄를 용서할 그리고 하나님 사방의 구적(구원)이다(갈 3:26~29; 엡 2:18).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심이다. 아멘.

IT IS WONDERFUL

(13) I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ethren, that often I have planned to come to you (and have been prevented so far) so that I may obtain some fruit among you also, even as among the rest of the Gentiles. (14) I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15) So, for my part, I am ea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also who are in Rome. (16)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Romans 1:13-16)

Paul confessed something that very few people understood. As a devout Jew, he called the Gentile people his brothers, "I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ethren, that often I have planned to come to you (and have been prevented so far) so that I may obtain some fruit among you also, even as among the rest of the Gentiles" (Rom. 1:13). Due to their strict diet, traditions, and religious customs Jews did not associate with Gentiles. It was a big no-no! Not only did Paul consider the Gentiles his brothers but he was beholden to them, "I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Rom. 1:14). His heart held no prejudices against people who were different from him. He truly wanted to meet with the Romans because he loved them. How can someone like Paul make such confessions? Isn't it wonderful? Paul was in debt to all people because he had received the gospel. He discharged his debt by preaching the gospel. Jesus Christ was the driving force in his life. He did not hold anything back, but instead poured all his energies and invested all his time in reaching people for Jesus Christ, "So, for my part, I am ea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also who are in Rome" (Rom. 1:15). What was it that made Paul's words and actions so wonderful?

Paul was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Rom. 1:16). The gospel is the good news that Jesus Christ died and rose again to save sinners,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Cor. 15:3-4). All Christians should share the gospel without shame. Unfortunately, in today's world there are many believers who are ashamed of the gospel. They are ashamed to tell others of Christ and His love. They are ashamed to seize the opportunities given to them to witness. Are you ashamed to share your faith with lost people? How can anyone be ashamed of Jesus when He endured our shame on the cross? Spend a moment and think about what makes you proud. Is it your family or educational background? Is it your job success or material wealth? Is it your nationality? Are you proud of having Jesus Christ in your life? Paul was a highly educated and prestigious man in his community. He was a Roman citizen by birth and a Jewish scholar by trade. He had a great background resume, but he threw everything away for God because of the gospel.

Paul was amazed at the power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Rom. 1:16). The gospel saves souls from eternal death,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The gospel offers hope to lost sinners. It brings about new birth when it is received. It

makes all things new, not some, but all things new to believer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Cor. 5:17). Do you really believe it? If so, then your perspective on life is wonderful. If not, then your life is filled with unhappiness all the time. The gospel succeeds where human wisdom fails. The gospel is the dynamics of God changing life and bringing eternal life,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1Cor. 1:18). The gospel is really just amazing.

Paul was astonished at the availability of the gospel,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Rom. 1:16). Paul had once thought that salvation was meant for Jews only. He placed a lot of pride in his heritage until he met Jesus and changed, "More than that, I count all things to be loss in view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but rubbish so that I may gain Christ" (Phil. 3:8). Paul had persecuted Christians, and because of this he considered himself the worst of sinners,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1Tim. 1:15). Can you believe a man who preached Christ so wonderfully thought of himself as the worst of sinners? The gospel illuminates the greatness of God and the terribleness of sin. Paul was thrilled with the "whoever" invitation of the gospel, "For the Scripture says,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Rom. 10:11-13). The good news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his salvation is permanent and complete, "T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Heb. 7:25).

My dear friend, do you honestly think the gospel is wonderful or does it mean little or nothing to you? Most Christians believe in themselves more than they do the gospel. Most people think making money is wonderful, not the cross. Paul truly understood the deep meaning of the gospel and his life reflected his blessings. Does your life reveal your unashamedness of the gospel? Does it show your amazement of its power? Does it still surprise you concerning its ease of access and openness to so many? I hope it does, so that your words and actions will be wonderful to God. Amen. 🙏

다음 주일 설교

놀랍도다

⁽¹³⁾ 형제들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¹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¹⁵⁾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¹⁶⁾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로마서 1:13~16)



김성관 목사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방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롬 1:13).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전통,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늘 빛을 쬔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롬 1:14). 그의 마음에는 자기와 다른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니다.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롬 1:15).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놀라운 고백과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 1:16).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3~4).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역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참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학력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입니까? 혹시 자신의 국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배경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놀랐나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놀랐습니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복음은 영혼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

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복음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불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실패할 때 복음은 성공합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에 놀랐다

바울은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에 놀랐습니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롬 1:16). 바울은 한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까지 자신이 선민이라는 사실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8).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죄인 중에 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딤후 1:15). 한 인간이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로 여기면서 그토록 놀랍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죄의 극악함을 분명히 조명해줍니다. 바울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롬 10:11~13).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이 구원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히 7:25).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은 놀라운 능력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거나 하찮은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습니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은 대단하게 여기면서 십자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았고 그의 삶에는 그 측부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1. 7.)

왜 모두가 탄식하는가!

(로마서 8:18~27)

신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많은 탄식이 있을 것이다. 어떤 현실의 상황에서 맞닥뜨린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식한다. 이와 같은 탄식은 신자들의 탄식이 아니다. 신자들은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탄식을 짓지 않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고 탄식하였던 바울은, 이후 놀라운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의 것들로 인한 모든 탄식은 사라진다(롬 8:3~6).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에는 참 생명력으로 넘칠 것이니(롬 8:7~11).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육의 것들을 모두 죽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 됨을 선포한다(롬 8:12~16). 물론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에는 고난이 동반된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롬 8:17~18). 신자들에게 약속된 이 영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탄식은 계속된다. 이와 같은 탄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회개하자. 신자들의 탄식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좌절감이나 핍박과 환난에 기인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는 말씀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 볼 때 진정한 탄식이 우리나온다. 우리가 탄식하는 그 이유가 바뀌어야 한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 8:22). 피조물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것들을 갈망한다. 이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피조물을 파괴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원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창 1:31),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 힘들다. 기성 이빈, 자연재해를 통해서 철저하게 짓밟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인공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7~8). 피조물의 탄식소리가 심해질수록 우리의 때는 더욱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다. 피조물의 탄식소리가 들려가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탄식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롬 8:23).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량(구속)을 고대하는 탄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죄 사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엡 1:7).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참 평강과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모든 근심은 사라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조금의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롬 3:10~11, 22~23). 결국 우리는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히 9:27). 그런데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되겠다. 이제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된다(롬 8:18). “우리는 탄식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미래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6~27). 우리는 연약하다. 이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역시 세상의 것들로 가득할 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소망이 전혀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우리의 신앙, 생각,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성령님이 의지해서 가능하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다.

왜 모두가 탄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총을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문제로 인하여 탄식하며 슬퍼한다.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간구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평생 반복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탄식을 버려라.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구원과 관계없는 탄식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성경성령시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지 않는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15). 아멘.

마가복음 강해 53

2009. 1월 11일(주일) 1부예배 메시지 / 마가복음 강해 / 주일 1부예배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기뻐하신다

(10:13~16)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 10:14). 어린 아이는 어리석다. 따라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가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연약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저런 아이들같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마 9:42).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셨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다. 어린 아이도 예외일 수 있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어린 아이를 막는 제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 진노는 전통과 율법에 매여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일기도 하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 병자들, 악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만저주셨다. 따라서 제자들의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다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막고 있지 않은가? 진심으로 회개하자(마 4:17).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산 560장).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자. 이때 참 기쁨이 있으며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부족한 것투성인 어린 아이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은총을 또렷하게 목격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잠시나마 제자들의 제지로 상처받았을 어린 영혼들을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셨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 10:16). 무엇보다도 천국이 이들을 기뻐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0:15).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탁월한 학문, 과학기술에 있지 않다. 학식이 풍부한 지성인들, 율법에 정통한 종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어린 아이처럼 낮아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마 18:3). 우리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참 신자는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마 9:1). 놀라운 비밀이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들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자. 거들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제자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매번 말씀(마 9:35)을 듣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부와 명예를 우선시하였다.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확정된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마음이 되려고만 한다. 수단과 방법만을 찾는다.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을 버려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기 원하신다. 복잡한 생각에 짓눌려 살지 말자.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살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삶,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

할렐루야! 신년 가족연합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 첫 아침에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위임목사님의 말씀은 직설적이며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신년 행담을 위해 지방으로 떠난 아들을 책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종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물어 보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건지 말 건지 선택은 자유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정신이 반쪽 드는 두려움의 경계였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곤 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살며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삶의 목표였음을 회개합니다.

목사님은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두나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과 미래, 이 세상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를 구분해서 완전히 새 시대, 새 관계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일에 마음 아파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사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보람찬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새해에는 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이 약속의 복음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십자가의 복을 전파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 종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일영(집사, 6교구)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아침의 분주함은 다른 요일의 분주함과 다른, 기쁘고도 설레는 분주함입니다. 특히 이번 신년 새 아침의 분주함은 다른 그 어느 해와는 다른 분주함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언제부터 이런 기쁨이 있게 되었을까, 왜 올해 신년 아침은 무언가 가슴 벅차오르는 소망과 감격이 넘쳐 오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나아가기를 하시는 분이셨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을 거야! 건강과 행복을 주실거야! 주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도 또한 “주이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의 회를 보이며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궁궐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저라도 단타게우신 것일까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삶이고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수, 아니면 외식하는 자의 삶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어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며 세상 것만 추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하며 영도되 회개하게 됩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다르고,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다름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남편을 보내주셨고, 이제 시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아갈 때는 저의 가족 삼대를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리며 교회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두 아들이 교회학교에서 예수님을 대할 마음으로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신년예배 때 위임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창재(집사, 19교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2008년 12월 25일 성탄 가족연합예배와 2009년 1월 11일 신년 가족연합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드리게 됨을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은 아침 일찍 가정예배로 시작하여 교회에서는 성도와 함께 드린 가족연합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정은 여섯 살난 철없는 개구쟁이로부터 70세 노년에 이르기까지 혹은 성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은퇴장로의 귀한 직분을 받은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단다. 참으로 은혜로 가득찬 시간이었단다.

그동안 각자가 연립과 직분, 부설별로 흩어져 있다가 성탄절과 신년에 함께 모여 반갑기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임목사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받은 말씀은 더욱 좋았다.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자를 보내셨다’(미 5:2~9)와 ‘그리스도 예수의 종’(로 1:1~4)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였다. 참된 복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분의 종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였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구호와 함께 나눈 교역자 및 당회원들과 성도들 간의 신년인사 시간은 복음을 위한 합한 전진을 다짐하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감동적이었다. 금년 2009년도 총현교회에 속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각 가정과 몸 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은철(은퇴장로, 21교구)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지난 해 저는 남성구역장로로 임명 받았습니니다. 아무것도 몰라 당황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남성구역예배를 축하와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역원들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의 나눔과 간증을 통해 성도간의 진정한 교제와 사랑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3명으로 시작된 예배가 15명까지 부흥하는 구역으로 주님께서 친히 세우주시마 첫 예배 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선교의 중요성을 몰라 무관심했던 저의 가족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아내는 7월초, 누나는 7월 중순, 그리고 저는 8월 초에 선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선교현장에서 예비해 놓은 3명 훈련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는 하나님과의 영연이며 이 세상에 서 천국을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고2 아들은 현재 1월말 단기선교를 위해 훈련받고 있으며, 중1 딸은 여 여름방학 때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모습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계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10월말 가족성경암송을 통해 저의 가족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처음 암송을 시작할 때에는 자신이 없었으며 가족의 반대와 사업상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가정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훗날 우리 모습이 주님과 같게 된다는 약속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두 세계를 사는 저에게도 말과 호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요한일서 3장은 지금은 우리 가족의 평생 삶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저의 가족을 새로운 교구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는 고요, 믿음의 결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박성철(집사, 16교구)

엘림관에서 누린 쉼

지난 12월 12일 수요일 저녁, 집회 후에 청년1부에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16명의 팀장과 교사, 목사와 함께 충청기도원 엘림관으로 가서 팀장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때마다 수련회며 기도원집회며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싶을 때 찾았던 너무도 익숙한 기도원인데, 2008년 연말에 찾은 기도원은 대변신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다니엘, 에스더관이 리모델링을 마쳐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음식과 반입이 제한되는 것에 반해 엘림관은 콘도식 숙박시설로, 식료품을 준비해 가면 취사가 가능하며 침실에도 온돌방과 침대방이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들 수 있도록 하여 여분의 이불 등도 준비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엘림관에는 각 방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으며, 복도에도 화장실이 있어 많은 인원이 엘림관을 찾아도 불편함 없이 샤워 및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워크숍을 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기도원의 좋은 공기를 마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산책을 하기도 좋으며, 야외기도처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어 은혜로운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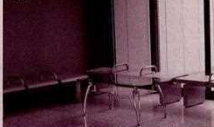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 크고 작은 모임을 가질 때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충청기도원 내에 위치한 엘림관을 찾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즐거운 선교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충청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고 엘림관에서 주님이 주시는 편안한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원(집사, 청년1부)

엘림관 외부



로비



소침침실



침실



욕실



주방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중학교 1학년인 큰 아이와 함께 CMTC, 선교기도회, 직무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기도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선교를 가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과 결정들이 태초에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 여러 모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나를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살아오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눈물 흘렸던 연약함을 말씀으로 채우시며, 위로받게 하시고 날마다 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참된 기쁨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셨다.

어느 가정에서 들었을 때의 일이다. 낯선데도 집이 아주 캄캄하고 어둡했다. 내가 이름을 돌보고 있던 젊은 남자와 그의 노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새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어 어두컴컴한 그 집이 더 어두워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한 뒤 모인 아이들과 찬양과 율동을 기쁨으로 함께 하였다. 그 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며, 여기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였다. 더운 날씨임에도 포근하고 따스함을 느끼며, 주님의 은사라고 부드러운 음성을 확실히 들을 수 있었다. "인사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잘 알았노라." 우리말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가시밭길 밟아 뿌려진 씨가 아니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아니요 돌밭에 뿌려진 씨도 아니요 오직 좋은 땅에 심겨진 좋은 씨앗이 되어 이 땅이 복된 복음의 땅이 되게 해달라 하고 계속 기도할 것이다.

장민철(집사, 22교구 7지역팀)

놀랍고 신기한 주님의 역사

별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에 내 평생 드릴 것 없이 이 몸을 주님께 드려도 부족한데 하나뿐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를 곳만 하겠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이라"(행 10:38)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선교에 임하였다.

한 아버지가 기도를 부탁하셔서 팀장님과 팀원들 모두 갔더니, 소 외양간 한쪽 옆에 아들을 격리시켜 두었다. 눈이 많이 튀어나온 청년이었었는데 거름을 전혀 못하고 초라하게 앉아있었다. 복음을 전하고, 팀원이 같이 기도해 주었다. 이어 길 가는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뒤 그의 집으로 가 두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주일 오후 사역 때 차가 논에 빠지게 되었다. 운전 기사도 프로이고, 차가 빠질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되었다. 어느 새 아이들이 몰려왔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청년이 그냥 지나가는 듯하더니 다시 돌아와 우리 차를 함께 밀어주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영접기도도 하였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신나게 찬송 부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까니도 제대로 쟁겨먹지 못했지만 배고픈 줄도 모르고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 감격했고 놀랍고도 신기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옥순(권사, 1교구 5지역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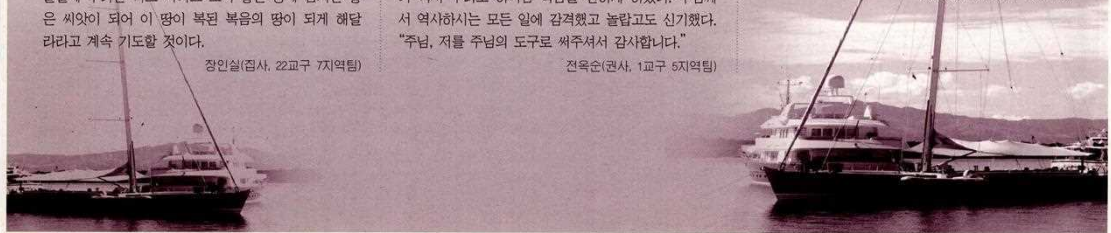
그들의 맑은 눈동자에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우리가 갈 선교지에서 소문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더욱 무릎 꿇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오. 직분 주심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다.

선교지는 예상대로 혼란스럽고 위험했다. 우리는 오지로 들어갔다. 그곳은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은 말랐고, 밀가루 같은 모래 바다는 사람이나 차가 지나면 많은 먼지로 가득 했다. 첫 날은 경찰이 쫓아와 재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다음 날 우리는 다른 동네로 갔다. 가는데 찢은 주민들은 일할 곳이 없어 길에 나와 있었다. 소름까지 먹을 여쭙조차 없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며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현지어로 말하다 말이 잘 안 통하면 서툰 영어로 전했다. 또 학교에 찾아가서 수업중인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 어느 중학교에서는 운동장에서 한계면에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들의 맑은 눈동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담겨지고, 그 맑은 영혼들의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솟아날 간절히 원한다.

서명남(권사, 6교구 7지역팀)



심자의 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

성경의 첫 번째 절은 성경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다. 창세기 1:1을 전경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만물을 지배하시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한 절은 세상의 기원과 의미에 관한 인간의 잘못된 모든 철학들을 반박한다.

1. 창세기 1:1은 무신론(atheism)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2. 창세기 1:1은 pantheism, 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신이라는 믿음)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초월하시기 때문이다.
3. 창세기 1:1은 다신론(polytheism)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만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4. 창세기 1:1은 물질주의(materialism)를 반박한다. 왜냐하면 물질은 시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 창세기 1:1은 이원론(dualism)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계시기 때문이다.
6. 창세기 1:1은 인본주의(humanism)를 반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며, 궁극적인 삶이시기 때문이다.
7. 창세기 1:1은 진화론(evolutionism)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14-15).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현혹할 것이다. 이에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성경 앞에 만자가 쌓이도록 내려놓지 마라. 매순간 성경을 놓지 말라.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이끈다. 아멘.

(편집실)

This is my destiny 나의 부르심

- Scott Brainer

This is my destiny

나의 부르심

This is my hope eternal

나의 영원한 소망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This is my purpose

나의 목적

This is my highest calling

나를 향한 가장한 부르심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 위해 사는 것

Carry me

이끄소서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품으소서

the place where I've belong Oh! Jesus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Cover me

덮으소서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d to see your face

주님의 얼굴 보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로 내가 나아갑니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9	이재학	11 청년1부	김재현(1)	55	한용국	20 청년1부	심정현(2)	71	한예진	20 유치부	이근호(20)
40	이민철	2 중동1부	김희현(1)	56	송정재	11 청년2부	신승준(12)	72	박성진	22 청년2부	김종태(22)
41	황우성	16 중동2부	최사연(1)	57	조한지	1 강인부	조승민	73	김기태	21 청년1부	이문진(21)
42	레나	25 외선부	전종원(4)	58	백윤기	7 청년1부	김종호(19)	74	신재광	4 청년2부	박영남(4)
43	김지호	25 외선부	전종원(4)	59	송광호	22 청년1부	이재철(18)	75	신성민	15 청년1부	이문진(15)
44	이준우	4 대학부	비지(13)	60	홍진선	11 청년1부	최재철(11)	76	김진민	1 청년1부	김영민(1)
45	오승호	23 청년2부	김영규(4)	61	정재민	4 중동1부	최재철(3)	77	나유진	20 청년1부	유영하(20)
46	서보민	18 청년2부	김영철(4)	62	김현서	1 중동1부	최재철(3)	78	김정철	1 청년1부	최진찬(1)
47	강병선	7 청년1부	비지(13)	63	남상일	16 청년1부	김진욱(14)	79	부미자	1 청년2부	곽노경(1)
48	허준	24 대학부	김영림(9)	64	신사나	25 외선부	배종현(20)	80	바다	25 외선부	김종호(21)
49	유미호	9 청년1부	김영숙(10)	65	최재성	3 중동1부	김종민(3)	81	장다미	17 청년1부	유영하(18)
50	최정수	1 강인부	최근호(20)	66	고경민	21 청년1부	이문철(13)	82	김성훈	10 청년1부	김재철(10)
51	예슬비	20 소망부	최지영(17)	67	한재경	1 중동1부	최재철(3)	83	전진호	4 청년1부	이준하(1)
52	박정순	20 소망부	황의영(12)	68	김경민	8 중동1부	이성훈(8)	84	김나라	2 청년1부	이준하(2)
53	김영록	14 청년1부	김정희(13)	69	박한우	8 중동1부	이성훈(8)	85	이현하	20 청년2부	김진욱(14)
54	도연재	6 청년2부	김정희(13)	70	김정호	20 청년2부	이근호(20)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교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치기칼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뉘었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9).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 예수님은 내 마음에 안 계시고 세상의 우상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나의 노력과 정성이 모자랐음에 항상 안타까워했습니다. 나의 노력과 정성, 이성과 의지로 만들어진 가공된 믿음으로 허상들을 좇으며 오류 속에, 착각 속에 있었습니니다. 노력으로 이성으로 내 마음 속의 죄성으로 인하여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는 말씀과 정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알고 있었을 뿐 은혜였음을 몰랐습니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렷고, 나의 이성과 의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니다. 다 주관하시는 그 섬세한 섭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이해 못했고 나의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도 그 섭리 안에 있었음을 몰랐습니니다. 진실로 저는 죄인이었습니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숭배하던 저를 깨뜨리셨습니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잃어버린 양이었던 나를 그의 품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감당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저의 아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니다. 성경이 인쇄된 글자야 아닌,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니다. 나의 꿈과 정성이 아닌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은총이었습니니다. 은혜였습니니다. 양의 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존이 되었습니니다. 나의 실패나 좌절이 나의 실수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우연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의 하나임을 고백합니다(롬 6:15, 8:21).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로 믿을 안에서 씩어짐의 종 노릇하면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갈 5:1). 그동안 나를 즐기차게 쫓아다니던 명예, 고경관과 칭들을 버리고 나니 참 평강과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니다. 이제 그 고백할 수 있습니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라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 우상을 숭배하던 잃어버린 양이었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니다(요엘 2:12~13). 죄와 심판 사이에 있는 은총이었습니니다. 베들레헴 말유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이 내 마음에 허상이 아닌, 실존이 되었습니니다.

나팔 울리던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신니 감사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됨을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포도나무 예수님에게서 주시는 생명을 받으며 화 복은 모퉁이 돌에 붙어있는 산 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교제로, 바뀌어진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는 내게 살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생명이 통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를 부인할 때 드러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소서.” 오직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요일 5:4). 아멘.



이세영
(장로. 팔월교회(천안대성))

교회 소식

모임

1. 집사회 1차회 영성훈련

일시: 13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배다나눔

대상: 1차회(5·9·13·17·21교구) 소속 안수집사 필참

별세

- 1. 박한석 성도(이재욱 성도의 모친·박성원 집사의 시모, 5교구 은마1구역) / 6일 별세, 8일 장례
- 2. 박삼대 타교집사(송기호 성도의 장인·박미서 권사의 부친·윤지현 성도의 외조부, 19교구 청룡구역) / 6일 별세, 8일 장례
- 3. 고연순 타교집사(유승삼 성도의 모친·김영은 권사의 시모, 15교구 반포2구역) / 6일 별세, 9일 장례

2009년 제3차 CMC

(교구과정: 3주간, 장소: 김길원집사)

시 간	1월 11일(오늘)
18:15~18:45	제3장 성경지 영적 성향
18:45~19:15	제4장 복음을 통한 침사자의 문제해결
19:15~19:30	제5장 영성기도회
시 간	1월 18일(다음 주일)
18:15~19:50	직무훈련

2009년 교구일련 훈련

일시: 여성일련 1월 14일(수)·21일(수) 2회 수요일부매 10:10

남성일련 1월 21일(수) 수요일부매 20:10

장소: 심방보존사, 부지역장, 구역장, 구역원장, 여/남자 각 교구 영성훈련 장소
지역장, 구역장, 남/녀자 제1교육관 407호

전도위원회 2008년 정기회개강식

- 1. 개강식: 2009년 1월 4일(수) 14:25(까지매주)
- 2. 대상자: 2008년 11월~12월
- 3. 강사장소: 전도위원회(제2교육관 404호)
- 4. 준비사항: 시선표 1부, 김관훈남(부장), 김정국목(부장), 영주종, 예금통장

2009년 2도 상행 회개교과일 실시

일시: 1월 11일(오늘) 15:10 장소: 제2교육관 501호
대상: 전도회개교, 전제전담대, 권사회, 집사회, 각 회개담당자

총회 교회주변 전도

일시: 여전도회 1월 14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월 17일(토) 14:00
장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차회(3·6·9·12·15·18·21·24·27·30·33·36·39·42·45·48·51·54·57·60·63·66·69·72·75·78·81·84·87·90·93·96·99·102·105·108·111·114·117·120·123·126·129·132·135·138·141·144·147·150·153·156·159·162·165·168·171·174·177·180·183·186·189·192·195·198·201·204·207·210·213·216·219·222·225·228·231·234·237·240·243·246·249·252·255·258·261·264·267·270·273·276·279·282·285·288·291·294·297·300·303·306·309·312·315·318·321·324·327·330·333·336·339·342·345·348·351·354·357·360·363·366·369·372·375·378·381·384·387·390·393·396·399·402·405·408·411·414·417·420·423·426·429·432·435·438·441·444·447·450·453·456·459·462·465·468·471·474·477·480·483·486·489·492·495·498·501·504·507·510·513·516·519·522·525·528·531·534·537·540·543·546·549·552·555·558·561·564·567·570·573·576·579·582·585·588·591·594·597·600·603·606·609·612·615·618·621·624·627·630·633·636·639·642·645·648·651·654·657·660·663·666·669·672·675·678·681·684·687·690·693·696·699·702·705·708·711·714·717·720·723·726·729·732·735·738·741·744·747·750·753·756·759·762·765·768·771·774·777·780·783·786·789·792·795·798·801·804·807·810·813·816·819·822·825·828·831·834·837·840·843·846·849·852·855·858·861·864·867·870·873·876·879·882·885·888·891·894·897·900·903·906·909·912·915·918·921·924·927·930·933·936·939·942·945·948·951·954·957·960·963·966·969·972·975·978·981·984·987·990·993·996·999·1002·1005·1008·1011·1014·1017·1020·1023·1026·1029·1032·1035·1038·1041·1044·1047·1050·1053·1056·1059·1062·1065·1068·1071·1074·1077·1080·1083·1086·1089·1092·1095·1098·1101·1104·1107·1110·1113·1116·1119·1122·1125·1128·1131·1134·1137·1140·1143·1146·1149·1152·1155·1158·1161·1164·1167·1170·1173·1176·1179·1182·1185·1188·1191·1194·1197·1200·1203·1206·1209·1212·1215·1218·1221·1224·1227·1230·1233·1236·1239·1242·1245·1248·1251·1254·1257·1260·1263·1266·1269·1272·1275·1278·1281·1284·1287·1290·1293·1296·1299·1302·1305·1308·1311·1314·1317·1320·1323·1326·1329·1332·1335·1338·1341·1344·1347·1350·1353·1356·1359·1362·1365·1368·1371·1374·1377·1380·1383·1386·1389·1392·1395·1398·1401·1404·1407·1410·1413·1416·1419·1422·1425·1428·1431·1434·1437·1440·1443·1446·1449·1452·1455·1458·1461·1464·1467·1470·1473·1476·1479·1482·1485·1488·1491·1494·1497·1500·1503·1506·1509·1512·1515·1518·1521·1524·1527·1530·1533·1536·1539·1542·1545·1548·1551·1554·1557·1560·1563·1566·1569·1572·1575·1578·1581·1584·1587·1590·1593·1596·1599·1602·1605·1608·1611·1614·1617·1620·1623·1626·1629·1632·1635·1638·1641·1644·1647·1650·1653·1656·1659·1662·1665·1668·1671·1674·1677·1680·1683·1686·1689·1692·1695·1698·1701·1704·1707·1710·1713·1716·1719·1722·1725·1728·1731·1734·1737·1740·1743·1746·1749·1752·1755·1758·1761·1764·1767·1770·1773·1776·1779·1782·1785·1788·1791·1794·1797·1800·1803·1806·1809·1812·1815·1818·1821·1824·1827·1830·1833·1836·1839·1842·1845·1848·1851·1854·1857·1860·1863·1866·1869·1872·1875·1878·1881·1884·1887·1890·1893·1896·1899·1902·1905·1908·1911·1914·1917·1920·1923·1926·1929·1932·1935·1938·1941·1944·1947·1950·1953·1956·1959·1962·1965·1968·1971·1974·1977·1980·1983·1986·1989·1992·1995·1998·2001·2004·2007·2010·2013·2016·2019·2022·2025·2028·2031·2034·2037·2040·2043·2046·2049·2052·2055·2058·2061·2064·2067·2070·2073·2076·2079·2082·2085·2088·2091·2094·2097·2100·2103·2106·2109·2112·2115·2118·2121·2124·2127·2130·2133·2136·2139·2142·2145·2148·2151·2154·2157·2160·2163·2166·2169·2172·2175·2178·2181·2184·2187·2190·2193·2196·2199·2202·2205·2208·2211·2214·2217·2220·2223·2226·2229·2232·2235·2238·2241·2244·2247·2250·2253·2256·2259·2262·2265·2268·2271·2274·2277·2280·2283·2286·2289·2292·2295·2298·2301·2304·2307·2310·2313·2316·2319·2322·2325·2328·2331·2334·2337·2340·2343·2346·2349·2352·2355·2358·2361·2364·2367·2370·2373·2376·2379·2382·2385·2388·2391·2394·2397·2400·2403·2406·2409·2412·2415·2418·2421·2424·2427·2430·2433·2436·2439·2442·2445·2448·2451·2454·2457·2460·2463·2466·2469·2472·2475·2478·2481·2484·2487·2490·2493·2496·2499·2502·2505·2508·2511·2514·2517·2520·2523·2526·2529·2532·2535·2538·2541·2544·2547·2550·2553·2556·2559·2562·2565·2568·2571·2574·2577·2580·2583·2586·2589·2592·2595·2598·2601·2604·2607·2610·2613·2616·2619·2622·2625·2628·2631·2634·2637·2640·2643·2646·2649·2652·2655·2658·2661·2664·2667·2670·2673·2676·2679·2682·2685·2688·2691·2694·2697·2700·2703·2706·2709·2712·2715·2718·2721·2724·2727·2730·2733·2736·2739·2742·2745·2748·2751·2754·2757·2760·2763·2766·2769·2772·2775·2778·2781·2784·2787·2790·2793·2796·2799·2802·2805·2808·2811·2814·2817·2820·2823·2826·2829·2832·2835·2838·2841·2844·2847·2850·2853·2856·2859·2862·2865·2868·2871·2874·2877·2880·2883·2886·2889·2892·2895·2898·2901·2904·2907·2910·2913·2916·2919·2922·2925·2928·2931·2934·2937·2940·2943·2946·2949·2952·2955·2958·2961·2964·2967·2970·2973·2976·2979·2982·2985·2988·2991·2994·2997·3000·3003·3006·3009·3012·3015·3018·3021·3024·3027·3030·3033·3036·3039·3042·3045·3048·3051·3054·3057·3060·3063·3066·3069·3072·3075·3078·3081·3084·3087·3090·3093·3096·3099·3102·3105·3108·3111·3114·3117·3120·3123·3126·3129·3132·3135·3138·3141·3144·3147·3150·3153·3156·3159·3162·3165·3168·3171·3174·3177·3180·3183·3186·3189·3192·3195·3198·3201·3204·3207·3210·3213·3216·3219·3222·3225·3228·3231·3234·3237·3240·3243·3246·3249·3252·3255·3258·3261·3264·3267·3270·3273·3276·3279·3282·3285·3288·3291·3294·3297·3300·3303·3306·3309·3312·3315·3318·3321·3324·3327·3330·3333·3336·3339·3342·3345·3348·3351·3354·3357·3360·3363·3366·3369·3372·3375·3378·3381·3384·3387·3390·3393·3396·3399·3402·3405·3408·3411·3414·3417·3420·3423·3426·3429·3432·3435·3438·3441·3444·3447·3450·3453·3456·3459·3462·3465·3468·3471·3474·3477·3480·3483·3486·3489·3492·3495·3498·3501·3504·3507·3510·3513·3516·3519·3522·3525·3528·3531·3534·3537·3540·3543·3546·3549·3552·3555·3558·3561·3564·3567·3570·3573·3576·3579·3582·3585·3588·3591·3594·3597·3600·3603·3606·3609·3612·3615·3618·3621·3624·3627·3630·3633·3636·3639·3642·3645·3648·3651·3654·3657·3660·3663·3666·3669·3672·3675·3678·3681·3684·3687·3690·3693·3696·3699·3702·3705·3708·3711·3714·3717·3720·3723·3726·3729·3732·3735·3738·3741·3744·3747·3750·3753·3756·3759·3762·3765·3768·3771·3774·3777·3780·3783·3786·3789·3792·3795·3798·3801·3804·3807·3810·3813·3816·3819·3822·3825·3828·3831·3834·3837·3840·3843·3846·3849·3852·3855·3858·3861·3864·3867·3870·3873·3876·3879·3882·3885·3888·3891·3894·3897·3900·3903·3906·3909·3912·3915·3918·3921·3924·3927·3930·3933·3936·3939·3942·3945·3948·3951·3954·3957·3960·3963·3966·3969·3972·3975·3978·3981·3984·3987·3990·3993·3996·3999·4002·4005·4008·4011·4014·4017·4020·4023·4026·4029·4032·4035·4038·4041·4044·4047·4050·4053·4056·4059·4062·4065·4068·4071·4074·4077·4080·4083·4086·4089·4092·4095·4098·4101·4104·4107·4110·4113·4116·4119·4122·4125·4128·4131·4134·4137·4140·4143·4146·4149·4152·4155·4158·4161·4164·4167·4170·4173·4176·4179·4182·4185·4188·4191·4194·4197·4200·4203·4206·4209·4212·4215·4218·4221·4224·4227·4230·4233·4236·4239·4242·4245·4248·4251·4254·4257·4260·4263·4266·4269·4272·4275·4278·4281·4284·4287·4290·4293·4296·4299·4302·4305·4308·4311·4314·4317·4320·4323·4326·4329·4332·4335·4338·4341·4344·4347·4350·4353·4356·4359·4362·4365·4368·4371·4374·4377·4380·4383·4386·4389·4392·4395·4398·4401·4404·4407·4410·4413·4416·4419·4422·4425·4428·4431·4434·4437·4440·4443·4446·4449·4452·4455·4458·4461·4464·4467·4470·4473·4476·4479·4482·4485·4488·4491·4494·4497·4500·4503·4506·4509·4512·4515·4518·4521·4524·4527·4530·4533·4536·4539·4542·4545·4548·4551·4554·4557·4560·4563·4566·4569·4572·4575·4578·4581·4584·4587·4590·4593·4596·4599·4602·4605·4608·4611·4614·4617·4620·4623·4626·4629·4632·4635·4638·4641·4644·4647·4650·4653·4656·4659·4662·4665·4668·4671·4674·4677·4680·4683·4686·4689·4692·4695·4698·4701·4704·4707·4710·4713·4716·4719·4722·4725·4728·4731·4734·4737·4740·4743·4746·4749·4752·4755·4758·4761·4764·4767·4770·4773·4776·4779·4782·4785·4788·4791·4794·4797·4800·4803·4806·4809·4812·4815·4818·4821·4824·4827·4830·4833·4836·4839·4842·4845·4848·4851·4854·4857·4860·4863·4866·4869·4872·4875·4878·4881·4884·4887·4890·4893·4896·4899·4902·4905·4908·4911·4914·4917·4920·4923·4926·4929·4932·4935·4938·4941·4944·4947·4950·4953·4956·4959·4962·4965·4968·4971·4974·4977·4980·4983·4986·4989·4992·4995·4998·5001·5004·5007·5010·5013·5016·5019·5022·5025·5028·5031·5034·5037·5040·5043·5046·5049·5052·5055·5058·5061·5064·5067·5070·5073·5076·5079·5082·5085·5088·5091·5094·5097·5100·5103·5106·5109·5112·5115·5118·5121·5124·5127·5130·5133·5136·5139·5142·5145·5148·5151·5154·5157·5160·5163·5166·5169·5172·5175·5178·5181·5184·5187·5190·5193·5196·5199·5202·5205·5208·5211·5214·5217·5220·5223·5226·5229·5232·5235·5238·5241·5244·5247·5250·5253·5256·5259·5262·5265·5268·5271·5274·5277·5280·5283·5286·5289·5292·5295·5298·5301·5304·5307·5310·5313·5316·5319·5322·5325·5328·5331·5334·5337·5340·5343·5346·5349·5352·5355·5358·5361·5364·5367·5370·5373·5376·5379·5382·5385·5388·5391·5394·5397·5400·5403·5406·5409·5412·5415·5418·5421·5424·5427·5430·5433·5436·5439·5442·5445·5448·5451·5454·5457·5460·5463·5466·5469·5472·5475·5478·5481·5484·5487·5490·5493·5496·5499·5502·5505·5508·5511·5514·5517·5520·5523·5526·5529·5532·5535·5538·5541·5544·5547·5550·5553·5556·5559·5562·5565·5568·5571·5574·5577·5580·5583·5586·5589·5592·5595·5598·5601·5604·5607·5610·5613·5616·5619·5622·5625·5628·5631·5634·5637·5640·5643·5646·5649·5652·5655·5658·5661·5664·5667·5670·5673·5676·5679·5682·5685·5688·5691·5694·5697·5700·5703·5706·5709·5712·5715·5718·5721·5724·5727·5730·5733·5736·5739·5742·5745·5748·5751·5754·5757·5760·5763·5766·5769·5772·5775·5778·5781·5784·5787·5790·5793·5796·5799·5802·5805·5808·5811·5814·5817·5820·5823·5826·5829·5832·5835·5838·5841·5844·5847·5850·5853·5856·5859·5862·5865·5868·5871·5874·5877·5880·5883·5886·5889·5892·5895·5898·5901·5904·5907·5910·5913·5916·5919·5922·5925·5928·5931·5934·5937·5940·5943·5946·5949·5952·5955·5958·5961·5964·5967·5970·5973·5976·5979·5982·5985·5988·5991·5994·5997·6000·6003·6006·6009·6012·6015·6018·6021·6024·6027·6030·6033·6036·6039·6042·6045·6048·6051·6054·6057·6060·6063·6066·6069·6072·6075·6078·6081·6084·6087·6090·6093·6096·6099·6102·6105·6108·6111·6114·6117·6120·6123·6126·6129·6132·6135·6138·6141·6144·6147·6150·6153·6156·6159·6162·6165·6168·6171·6174·6177·6180·6183·6186·6189·6192·6195·6198·6201·6204·6207·6210·6213·6216·6219·6222·6225·6228·6231·6234·6237·6240·6243·6246·6249·6252·6255·6258·6261·6264·6267·6270·6273·6276·6279·6282·6285·6288·6291·6294·6297·6300·6303·6306·6309·6312·6315·6318·6321·6324·6327·6330·6333·6336·6339·6342·6345·6348·6351·6354·6357·6360·6363·6366·6369·6372·6375·6378·6381·6384·6387·6390·6393·6396·6399·6402·6405·6408·6411·6414·6417·6420·6423·6426·6429·6432·6435·6438·6441·6444·6447·6450·6453·6456·6459·6462·6465·6468·6471·6474·6477·6480·6483·6486·6489·6492·6495·6498·6501·6504·6507·6510·6513·6516·6519·6522·6525·6528·6531·6534·6537·6540·6543·6546·6549·6552·6555·6558·6561·6564·6567·6570·6573·6576·6579·6582·6585·6588·6591·6594·6597·6600·6603·6606·6609·6612·6615·6618·6621·6624·6627·6630·6633·6636·6639·6642·6645·6648·6651·6654·6657·6660·6663·6